

“절박함이 비결이죠”... MICE 국제대회 ‘우승’

(기업회의 · 포상관광 · 컨벤션 · 전시)

심사위원 “창의 · 표현력 뛰어나”

“세계무대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국제회의의 유치컨테스트 ‘Seoul MICE Youth Challenge’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해 1위를 차지한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 팀의 말이다. 주인공은 박진표(관광경영 3), 김상결(관광개발 3), 부정훈(관광경영3), 윤수지(경영4), 이소영(문화조형3)씨. 이 대회는 세계 각국의 대표팀이 모여 가상의 국제회의를 자신의 국가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는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열린 ‘2010 한국 MICE 산업전’의 일환으로 지난 달 25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한국 대표팀인 인재양성센터팀을 비롯해 영국, 호주, 중국, 홍콩 등의 대표팀이 모였다. 세계무대에서 제주 마이스산업의 미래를 밝혀준 이들을 지난 달 26일 만났다. 평범해 보이는 이들이 해외 대표팀과 경쟁에서 당당히 1위를 할 수 있었던 힘은 ‘절박함’이었다고 한다. “사실 이번 대회는 실용적이었

죠. 팀원 모두가 꼭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2달동안 거의 합숙하듯 시피 밤을 새웠어요. 제주에서 입상한 선례가 없어 선배의 조언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팀원 모두가 절실했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탄탄한 준비는 세계무대에서도 빛을 발했다. 이들은 ‘Breathe(숨 쉬다)’를 주제로 발표한 외국인 심사위원들에게 “한국 학생들의 창의력과 뛰어난 표현력이 놀랐다”는 극찬을 받았다.

“경쟁한 해외 대표팀이 나와서 긴장을 많이 했어요. 대회 분위기를 즐길 겨를도 없었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과는 돌아왔습니다. 막상 대회를 치르고 나니 우리도 못할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제주대 학생들이 이런 해외취업도 도전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대 학생들에게도 언제나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뜻이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다. 이들의 우승은 2달 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였다. 박진표씨는 “내년에 참가할 학생들은 웬만하



국제회의의 유치컨테스트 ‘Seoul MICE Youth Challenge’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해 1위를 차지한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팀.

면 참가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웃었다. 적당히 준비하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참가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적당히 준비했다면 떨어졌을 겁니다.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팀원 모두가 하나가 됐어요. 절실했기에 서로 ‘죽겠다’고 하소연하면서도 매일 밤을 지새웠죠.”

이들은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의 취업동아리 멤버들이

다. 이들의 성과는 센터의 지원도 특별히 역할을 했다.

“작년에는 개인적으로 대회에 나가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센터에서 장소와 금전적 지원을 잘 해주셔서 우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도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들. 센터의 지원과 팀원들의 열정이 합쳐져 꿈에 날개를 달았다. 이들이 있기에 제주 마이스산업의 미래는 밝다.

고용희 기자

교직과정 재평가서 개선 안되면 정원감축

교육대학원은 준폐위기... 구조조정 ‘후폭풍’ 우려

학교측 “재평가 준비 만전 기해 문제해결”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내년 일반학과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재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면 구조조정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서 일반학과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이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1년 사이에 이뤄지는 재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내년 교직과정 이수 가능 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교직과정 이수 가능 학생은 141명에 이르고 있다. 내년 평가에서도 이번처럼 결과가 좋지 못하면 대상 학생 중 70명의 학생만이 교직과정을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사를 준비하는 일반학과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다솔(간호학과 1)씨는 “교직과

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직과정 모집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이 빠졌다”며 “학교 측에서 이번 문제를 잘 대처해서 현행 정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대학원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현재 교육학과에 20개 전공과목이 새롭게 개설돼 4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지만, 내년 재평가에서 다시 D등급을 받게 된다면 교원양성기능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학사과는 지난 8월 수업행동 분석기를 구입해 사범대학, 교육대학, 인문대학에 각각 한 대씩을 설치했다. 또 국제화를 대비해 해외 교육 실습인원을 35명에서 50명으로 늘려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학과와 관계자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교직과정 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합동 학술 세미나와 수업 실기 경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재평가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대학원도 교원양성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대학원은 장학금 수혜 인원을 늘리고, 전임교원 학교 현장이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확보했다. 이외에도 교원자격 취득자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계획해 다가오는 재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교육원(사범대 학장) 교육대학원장은 “실질적으로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과 조교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모집인원 배정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교육목표 정립 공청회

오는 3일 교양동 4130호

제주대학교 교육목표 체계 정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3일 오후 4시 교양동의 1층 세미나실(4130호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제주대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목표 체계를 정립하고자 이뤄진다. 기존 교육목표체계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만을 나열하는 등 대학의 비전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청회에서는 교훈의 명료화 및 상세화, 교훈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목표 설정,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간상 제시,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표 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참여는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행정고시 2명 합격... 경쟁률 43대1

허영지 · 조성현씨... 2명 이상 배출 10여곳 뿐

제주대가 43대1의 경쟁률을 뚫고 행정고시 합격자를 2명 배출했다.

허영지(행정학과 08졸)씨와 조성현(컴퓨터공학과 4)씨가 행정고시에 최종합격했다.

허영지씨는 일반행정 제주지렬, 조성현씨는 일반행정 전국지렬에 합격했다.

올해 행정고시에는 1만1196명이 응시해 평균경쟁률 4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모집 231명과 지역모집 35명 등 총 266명이 최종합격했으며 이중 제주대는 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국 대학에서 행정고시 합격자를 2명 이상 배출한 대학이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제주대학교의 행정고시 합격 결과는



허영지 · 조성현

지방대학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사령

양수련(간호 1)

12월 1일자로
수습기자로 임명함

박세필 교수팀, 국내 최초 역분화줄기세포 기술 확립

심장근육세포 분화 배양에 성공... 난치병 환자에 도움

박세필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체세포 역분화줄기세포(iPS)를 이용한 심장근육세포 분화 배양에 성공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성공한 이번 체세포 역분화줄기세포 기술로 난치병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세필 교수팀과 (주)미래생명공학연구소는 지난 달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효율적인 체세포 역분화줄기세포 확립방법과 심장근육세포 분화 유도기술개발로 유용동물의 효율적인 생산, 개량, 증식, 보존과 복원 및 맞춤형 세포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성공으로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일본연구팀의 부차체세포 유전자 주입방법보다 9.2배의 높은 특정 유전자 체세포주입 발현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

박세필 교수는 “이번 기술을 동물에 적용할 경우 효율적인 유용동물의 생산·개량·증식·보존 및 복원이 기대된다”면서 “심장근육세포 재생 등 난치병 환자에 대한 맞춤형 세포치료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기술은 난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없으며 환자의 체세포를 활용한 환자맞춤형 치료도 가능해져 난치병



기자회견 하는 박세필 교수.

환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심장질환 치료 샘플 외에 신경질환과 관련해서도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사원증고용
Yong, Ko
사번: 20100705
경영지원본부

꿈이 내세로!
좋은일이 생길거예요

2010년 7월 5일 노동부가 고용노동부 새롭게 출범합니다
일자리 중심의 정책으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활력 있는 내일을 위해
대한민국에 '좋은 일'을 만들겠습니다
당신의 꿈이 담긴 일자리 만들기.
고용노동부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일이 대한민국의 내일.
이제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내일을 펼치겠습니다

대책없는 휴강... 교수님, 수업은 언제? 연평도 관련 성명서 발표

대외활동 좋지만 수업과 연구에 우선 순위 뒤야

강의 휴강 시 보장하도록한 규정이 있지만 보장일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학사관리규정 제25조에는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때에는 대강 또는 보장계획을 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공휴일이나 대동제 등으로 휴강했던 날은 시험 전후에 보장기간을 지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사정에 의해 휴강을 했던 수업은 보장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학사일정에 지정된 보장일은 국가공휴일만 계산해 일주일 중 며칠만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보장일이라면 교원의 사정에 의해 휴강을 했던 목·금요일 수업에서는 보장을 하고 싶어도 일정을 잡기가 힘들다. 수업현장에서 세미나 등 교원의 사정으로 인한 휴강이 자주 있지만 이미 정해진 학사일정에서 보장일을 끼워 넣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다. 평일에 보장을 하면 학생마다 각기 수업이 달라서 자칫 강의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학사일정에 지정된 보장일은 국가공휴일만 계산해 일주일 중 며칠만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보장일이라면 교원의 사정에 의해 휴강을 했던 목·금요일 수업에서는 보장을 하고 싶어도 일정을 잡기가 힘들다. 수업현장에서 세미나 등 교원의 사정으로 인한 휴강이 자주 있지만 이미 정해진 학사일정에서 보장일을 끼워 넣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다. 평일에 보장을 하면 학생마다 각기 수업이 달라서 자칫 강의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결쳐서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말에 아르바이트 등 개인 일정이 있는 학생이 많아 출석률이 낮다.

이에 일부 교원들은 보장을 하지 않고 수업진도를 빨리 나가거나 과제로 보충을 대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학사일정에 지정된 보장일은 국가공휴일만 계산해 보장일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보장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고 수업 속도를 높이는 것은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린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한솔(아간행정 1)씨는 "지난학기 한 수업에서 3번 정도 휴강을 했는데 보장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교수계획서에 나온 진도를 다 나갔지만 배울 것을 다 못 배운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장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타대학에서는 보장기간을 학사일정에서 일주일로 정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3일이던 지정보장일을 2008년부터 일주일로 확대했다. 교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휴강 시 보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립대에서도 보장기간을 일주일로 두고 있다. 박선아(서울시립대 교무과 수업팀)씨는 "수업마다 강의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을 제대로 실시하려면 지정보장일을 1주일로 뒤야 한다"며 "덕분에 날짜를 잡지 못해 보장을 못하는 교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부산대에서는 내년부터 국가공휴일을 제외한 보장기간 외에 추가로 하루 더 보장기간을 둔다. 지정보장일에 보장을 못한 수업이나 교원의 사정으로 휴강했던 수업을 위해 배려한 것이다.

학사과에서는 일주일 보장을 두는 것은 학사일정이 길어져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명숙(학사과) 수업팀장은 "휴강을 한 수업에서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겠다"며 "보장기간은 타대학 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중앙위, 학생회관 분양소 설치



지난달 29일 학생회관 1층 로비에 연평도 포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분양소가 설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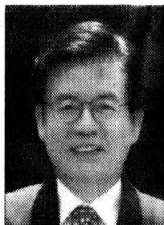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가 지난달 25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한 응징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위는 성명을 통해 "천안함 사태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또다시 도발도 위협행위도 아닌 명백하고 경악스러운 침략행위를 감행했다"며 "더욱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에서 어긋나는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였으며, 북한 스스로가 정상적인 나라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북한에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라면서 "잊어버릴 만하면 도발과 침략을 일삼는 북한으로부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국민들이 다시는 생명의 위협과 재산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방법을 강구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위는 지난 29일부터 연평도 포격으로 목숨을 잃은故 서정우 하사,故 문광욱 일병,故 김치백씨와故 배복철씨의 명복을 비는 분양소를 설치했다.

안성수 교수, 세계인명사전 등재



안성수 교수

평생교육원 원장인 안성수(국어교육과) 교수가 <마르퀴스 후즈 후(세계인명사전) 2011년도 판>에 등재된 바 있다.

안성수 교수는 조선일보 신춘문예 출신 문학평론가로, 그동안 낙후성을 보여온 현대 수필계에 30여 편의 수필철학과 수필미학 논문을 발표하여, 수필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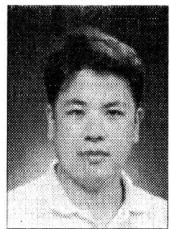
특히, 2004년부터 5년 동안 연재한 <수필 오디세이>는 국내외 수필가와 학자들로부터 수필미학과 수필철학의 새 경지를 열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안 교수가 제안한 '시수필(Poetic Essay) 창작론'과 '수필치료 이론' 등은 국내외 수필계의 본격적인 첫 시도로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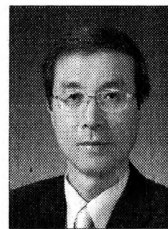
한편 안성수 교수는 평생교육원에서 1998년부터 수필창작교실을 운영해오면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수필작가의 양성을 위해 심혈을 쏟고 있다.

학회장 선출과 각종 수상으로 빛내

김세현 · 김진영 · 주홍구 · 팽동국 교수



김세현 교수



김진영 교수



주홍구 교수



팽동국 교수

교수들이 학회장 선출을 비롯해 다양한 상을 수상하는 등 제주대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김세현 교수(과학교육과 물리교육전공)의 논문이 지난달 22일 한국물리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저명 학술지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JKPS) 11월호에 HIGHLIGHT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수상한 논문은 온도에 의존하는 수소의 위치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고 계산함으로써 상전이 이론을 잘

설명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진영(사회학과) 교수는 지난달 19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 제32차 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 겸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제주학회는 제주의 독특한 민속·언어·문화·생활유산·자연 등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전학문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 전문가 등 27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규모의 학회이다. 임기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주홍구(수의학과) 교수는 지난달 19일 전국 WISE 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화여자대학교 LG컨벤션홀에서 '2010 WISE 멘토링이 빛나는 밤'에서 '여성과학자를 키우는 남성멘토링'을 수상했다.

주홍구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올해의 WISE사업에서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팽동국(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10~12일 포인 사인빌리조트에서 열린 '2010년도 한국음향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팽동국 교수는 그 동안 창의적인 연구 저작과 발표를 통하여 학술 분야에 탁월한 공적을 이룩한 연구자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했다.

제주대 뉴스 클리핑

한국장학재단과 인재육성사업 공동추진

제주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이 지난달 24일 서 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 대강당에서 인재육성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업무협약에 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주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생 지식봉사 사업' 등 인재육성사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대학생 지식봉사 사업'은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고민상담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JDC와 취업률 향상 위한 업무협약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지난 19일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 맞춤형 강좌 개발과 실무맞춤형 인턴십 운영 등에 관한 상호협력력을 비롯해 제주지역 취업률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관서도민협회청년회 33만9천엔 기탁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청년회(회장 강충훈)는 지난달 26일 제주대를 방문해 도서관 기증식을 본관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청년회는 지난 1971년부터 제주대학교 도서관에 도서관기금을 매년 기탁했으며, 현재까지 총 2520만7223원을 기탁했다.

교수회 총회 · 현안 토론회 가제

교수회(회장 양길현)는 지난 24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2010년 제주대학교 교수회 총회 겸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 선출과 교수회 발전을 위한 제언의 시간을 가졌다. 총회 이후에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허남춘 교수 도남국문학상 수상

허남춘(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도남학회(이사장 윤철중)로부터 제25회 도남국문학상을 수상했다.

도남국문학상은 우리나라 국문학의 초석을 다진 도남 조운제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학문적 전통을 계승시키기 위해 지난 1976년 설립된 도남학회가 매년 국문학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자들에게 시상하는 국문학상을 수상했다.



허남춘 교수

2011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동계방학 특별강좌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11년 새해를 맞아 사회봉사 기능의 확대와 평생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맞춤형 신년특별강좌를 개설합니다

모집요강

가족과 함께하는 「교직원 생활수지침」

1. 모집인원 : 30명 (가족당 2명 이내)
2. 지원자격 : 제주대학교 교직원(가족 포함)
3. 학습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1년 1월 8일 ~ 2011년 1월 29일(주 1회)
나. 시 간 : 매주 토요일 10:00 ~ 12:00(총시간 : 2시간/주 x 4주=8시간)
다. 장 소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
4. 학 습 비 : 80,000원(단, 80%이상 출석시 전액 환불)
5. 강 사 : 고려수지침 원장 하경수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권장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과 연계한 「초·중등 독서논술체험 특별캠프」

1. 모집인원 : 초등학생(2개반, 각 20명) 40명, 중학생(2개반, 각 20명) 40명, 계 80명
2. 지원자격 : 제주도내 초등학생 5.6학년, 중학생 전 학년
3. 학습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1년 1월 3일 ~ 1월 29일(주 2회)
나. 시 간 : - 초등부 : 매주 월요일 목요일 09:00 ~ 12:00 (총시간 : 6시간/주 x 4주 = 24시간)
- 중등부 : 매주 화요일 금요일 09:00 ~ 12:00 (총시간 : 6시간/주 x 4주 = 24시간)
다. 장 소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강의실
4. 학 습 비 : 200,000원(교직원 자녀 10% 할인)
5. 강사역량
- 문학박사 안성수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문학평론가)
- 교육학박사 전제웅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국어교육전공 교수, 쓰기교육전문가)
- 문학박사 양영길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시인)
- 문학박사 김지연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시인)

프로그램의 특징

가족과 함께하는 「교직원 생활수지침」

- ▶ 최고의 강사진
- ▶ 80%이상 출석 시 수강료 전액 환불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권장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과 연계한 「초·중등 독서논술체험 특별캠프」

- ▶ 대학교수가 직접 지도하는 체험중심 독서, 논술 강의
- ▶ 토론식 강의, 참작지도, 체험중심 실기지도 병행
- ▶ 한 강의실 2명의 강사 배치
- ▶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권장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 기록방법 알리기
- ▶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독서, 논술지도 방식 적용
- ▶ 독서 논술과 시낭송 행사의 날 개최, 우수자 표창
- ▶ 제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규정 제18조에 의거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접수기간 및 접수 방법

1. 접수기간 : 2010. 12. 6(월) ~ 12. 27(월), 17:00
2.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우리대학 소정 양식)
나. 학습비 : 「생활수지침」 80,000원 / 「초·중등 독서논술체험 특별캠프」 200,000원
※ 학습비는 계좌입금 (학습자 이름으로)
계좌번호 : 954-01-24748 (농협, 예금주 제주대학교)
3. 교부 및 접수처
가. 방문접수 및 FAX접수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09시부터 17시까지)
- FAX 번호 : 702-5503
나. 입학지원서는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psg.jeju.ac.kr)에서 다운받아 이용

참고사항

1. 접수기간 내 모집인원이 충족되었을 경우 접수 종료함
2. 수강대상자 선발은 접수자 순으로 결정하며, 전달사항은 개별 통보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754-2704, 2705)로 문의 바람

미술학과, 냉난방시설 · 실습여건 열악

학교측 “내년 강의실에 냉난방시설”



각종 폐물건들을 가져와 이용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미술학과.

미술학과 학생들이 열악한 수업 환경에 방치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겨울에도 추위에 떨며 수업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그림을 그릴 공간이 부족해 일부 강의실에서는 쪼그려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러한 미술학과의 수업환경은 지난해 823호 신문(2009년 9월 30일자)을 통해 지적됐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미술학과 건물에는 고장난 선풍기와 스팀온풍기가 흙물처럼 방치돼 있다. 일부 강의실에서 스팀온풍기가 가동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작동된다. 미술학과

과는 야간작업을 많이 하는데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인 밤에 난방을 가동할 수 없다. 또한 스팀온풍기가 강의실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해 학생들은 추운 겨울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특히 조소전공에서는 여름에 에어컨이 필수적이다. 전장에 달려있는 선풍기는 나무를 깎는 등 조각을 하면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장식품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과에서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화 시설과장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미술학과는 공간이 부족해 작은 실습실에 13명이 들어가 작품활동을 한다. ‘미술’이라는 학과 특성상 개인당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공간이 없어 콩나물처럼 뻗뻗하게 앉을 수밖에 없다. 덕분에 학생들은 쪼그려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야간작업 후 잠을 자려고 해도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물감으로 범벅된 바닥에서 잠을 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2학기 쯤 미술관 뒤편에 500평 정도의 실습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나 실습건물은 시간강사 대기실과 조소과 학생들의 실습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때문에 현재 미술학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공간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선영 예술학부 회장은 “조소과를 포함해 다른 학생들도 공간 문제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미술학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술학부 행정실에서는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순화 예술학부 행정실장은 “예산을 확보해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영 회장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장학금 전달

법정대 4명에게 1백만원씩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총동문회장 교영두)은 지난 10월 24일 후학양성을 위해 법정대학 각 학과에서 추천받은 4명의 학생에게 1백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학업 정진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앞으로 매년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장학금은 지난 1992년부터 고급관리자과정 각 기별동문회에서

낸 발전기금 수익금에서 총동문회가 지원받는 행사비를 절약하여 조성됐다.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에서 지금까지 행정대학원에 패적인 발전기금은 총 3억6720여만원에 이른다.

한편, 이날 학교 체육관에서 동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0주년 기념 제16회 총동문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장학생 명단이다.

▲신대륙(법학 2) ▲하아름(행정 2) ▲송성현(정치외교 1) ▲이미희(언론홍보 3).

‘슈퍼스타’ 총학 공약이행 “비교적 성실”

지방선거 특정후보 지지선언은 논란

제42대 슈퍼스타 총학생회의 학생회 활동도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제주대신문에서는 한해를 정리하며 슈퍼스타 총학생회의 공약들을 최종 점검하고자 한다. 총학생회가 1년동안 어떤 공약을 실천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슈퍼스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등록금 카드결제 △생활관 · 도서관 자치위원회 구성 △교내 순환버스 연장 △아라뮤지홀 대관료 지원 등을 비롯해 △대동제 슈퍼기획단 △테마장학금 △취업박람회 등을 이뤄냈다. 또한 기존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재정보고와 중앙운영위 회의록 공개를 비교적 잘 수행했다. 또한 각종 주요사안과 관련해 제주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등록금 관련 조례제정 촉구 △취업상한제도 문제점 지적 △4·3특별법 개악 반대 △제주7차자연경관 선정 등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도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제주대 학생들의 불편과 필요한 점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학생들과 중앙위에 의견을 묻지 않고 총학생회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많은 공약을 이뤄냈지만 별 성과 없이 지나가버린 공약도 있었다.

▲예비군 훈련장소 변경, 타 대

학 요구로 보류

총학생회는 제주방위사령부와 협상을 통해 예비군 훈련장 정실 이전을 약속 받고 훈련 날짜까지 결정됐었다. 그러나 도내 다른 대학도 비슷한 요청이 이뤄지자 보니 훈련 일수 부족으로 보류하게 됐다.

정현철 회장은 “얼마 전 도의회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부분을 요구했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답했다.

▲과도한 공약, 공약 이행에 걸

림들

총학생회는 출마 당시 40여명에 이르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새롭게 당선된 ‘뚝뚝뚝’ 선거운동본부의 30개 공약보다 많은 것이다. 이렇다보니 이루지 못한 공약들이 많은 것에 대해 과도한 공약 남발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과도한 공약으로 인해 공약이행을 위해 집중을 못하고 여러 가지 공약을 진행하다보니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총학생회의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교양동사물한 설치, 무인증명서 발급기 추가 설치 등은 학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약들을 남발한 것이라는 것이다.

정현철 총학생회장은 “여러 행사들로 인해 뒤로 미뤄지는 공약들도 있었다”며 “총학생회의 임기가 1년에 그쳐 공약 이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소통의 창구 다양화 필요

공약 이행에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은 소통의 창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총학생회는 대부분 학생복지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담당부서에서 재차 협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공약이행과 관련해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총학생회는 대학 3주체인 학생, 교수, 직원 대표가 참여해 운영되는 대학발전협의회(가칭)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현철 회장은 “발전협의회가 만들어 진다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사안이나 대학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바로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전협의회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시험 공부보다 족보부터 찾는 학생들

과방, 동아리방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대학내 족보문화가 성행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시험기간만 되면 학생들은 시험 공부에 앞서 숙청 족보를 찾기 위한 열띤 경쟁을 벌인다. 학과 선배를 비롯해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하며 자신이 듣고 있는 수업에 족보를 찾아 나선다. 특히 과방이나 동아리방만 가면 선배를 통해 족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심지어는 중앙자치기구 홈페이지에 버젓이 족보가 기재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족보 문화에 대해 조문수

(관광경영) 교수는 “족보는 수업과 관련한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직접 공부를 하며 얻은 지식이 자신에게 진정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족보문화를 양성하는 것은 잘못된 시험 출제방식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있다. 족보라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시험유형을 악용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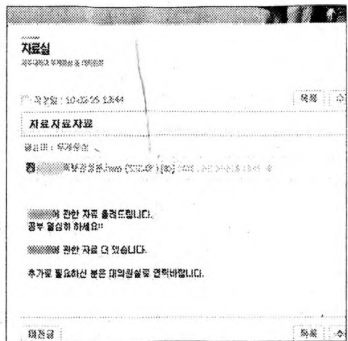
황정봉(무역학과) 교수는 “족보만 공부해서는 좋은 학점을 받기 힘들다”며 “문제가 매 시험마다 새

롭게 출제된다면 족보는 공부하기 위한 정리본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중앙자치기구 홈페이지에 족보가 기재되고 과방이나 동아리방들을 통해 공공연하게 떠도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법정대학의 한 학생은 “시험을 정당하게 보고 싶어도 대부분 학생들이 족보를 사용하다보니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가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족보를 본다”고 말했다.

또 김태환(수학 2)씨는 “족보가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나도는 족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게 되면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던 학생들이 공부할 생각이 없어진다”며 “족보를 학생자치기구가 인터넷에 대놓고 올리거나 과방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지 기자



“당선되면 그만?... 쓰레기 치워라”

○...지하동맹은 쓰레기장?

학생회관 지하에 있는 동아리방 공간이 공사판으로 변해 지하 동아리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어두컴컴한 입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가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한다고.

지난 2011 총학생회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하 공간을 빌려 썼던 ‘뚝뚝뚝’ 선거운동본부가 홍보를 하면서 사용한 기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것.

학생들이 지하에 있는 동아리를 외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치워 줬으면.

○...제주대 학생들은 노예?

제주대 홈페이지 구인 게시판에 조선시대애나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학생들이 아우성.

알고 보니 양심 없는 일부 업주들이 2010년도 최저임금인 4110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제시해놓고 글을 올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학생 신분에서 사회에 나가기 전 작은 경험이라도 해보고, 미려하나마 용돈벌이를 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업주들은 짓밟지 않았으면.

○...강의가 끝나고 책상 위로 보이는 형형색색의 물건들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강의가 시작할 때 없었던 것들이 책상 위로 모습을 나타낸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과자를 먹거나 음료수, 커피 등을 마시고 난 뒤에 쓰레기를 그대로 책상 위에 두거나 벽 옆 기둥에 놓고 나가버려서 발생한 일이라고.

규정상 강의실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있는 만큼 학생들도 이를 잘 지켜줬으면하고 물 같은 것을 마시고 나서는 휴지통에 버리고 가는 센스를 발휘해주길.

제30회 백록문학상 및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6주년을 맞이하여 제30회 백록문학상 및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제30회 백록문학상 공모

1. 응 모 자 격: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2. 응 모 분 야: 시(1인 5편 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2010년 12월 31일(금) 18:00까지
4. 접 수 장 소: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 (취업전략본부 3층)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5. 발 표: 제주대신문 847호(2011년 1월 5일 발행 예정)
6. 시 상 내 역: 각 부문 당선작(50만원), 가작(30만원)
*단, 작품 수 · 작품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 함

제30회 백록학술상 공모

1. 응 모 자 격: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2. 응 모 분 야: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출력물과 논문파일은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3. 시 상: 학부생/대학원생
*수상인원은 논문 수중에 따라 변동 가능
당선작 각 1편: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각 2편: 총장상 및 30만원
4. 심사 및 시상: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5. 접 수 마 감: 2010년 12월 6일(월) 18:00까지
6. 당 선 작 발 표: 2011년 신년호

돈대박

공짜 선풍기 파전, 계란찜, 갈비찜

생맥주 공짜!

고기만 드셔도

삼겹살
가브리살
항정살

돌판갈비찜
돌판닭찜

■ 시청

아구장

돈대박

제주시 이도2동 1769-1
T. 759-2382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청문앞 출발
- 주말교과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 시청

← 제주여고

↑ 학원

↓ 제주대

아라중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 제주대학교 선진화 정책 실천 로드맵 확정

세계의 명품대학, 그 출발점은 도전과 변화
“취업률 70% · 발전기금 1000억 조성하겠다”

대학은 변화야 산다.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내보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다. 여기에 '경쟁력 있는 대학만 살리겠다'는 MB정부의 대학지원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대학 사회에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제주대학교가 있다.

제주대학교가 오는 2012년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전면적으로 내세운 '선진화 정책 실천 로드맵'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발전을 위한 핵심목표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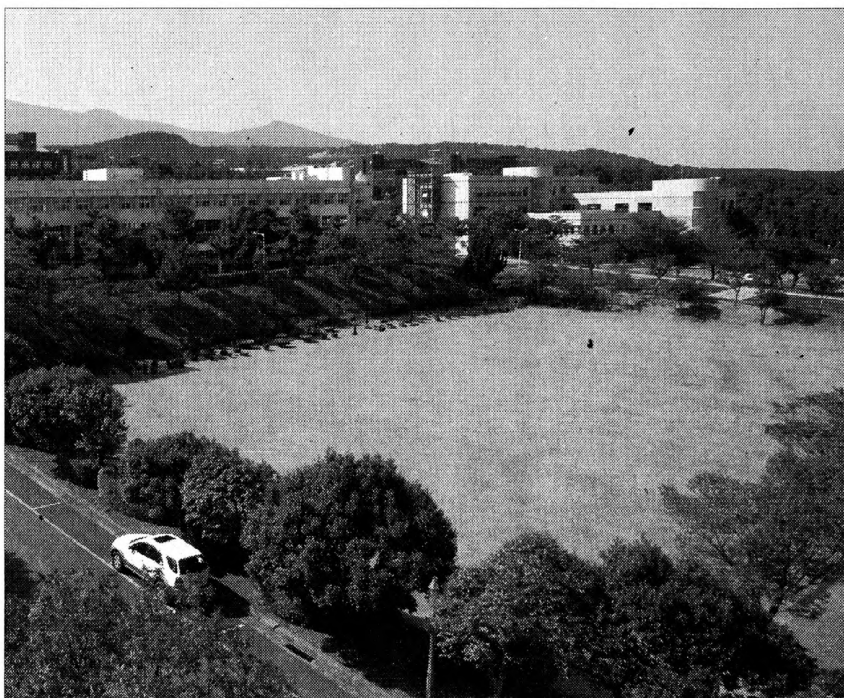
대학 선진화 정책의 첫 발걸음은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을 비전으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리드해 가는 지역거점대학', '지구촌 인재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글로벌대학', '가슴 따뜻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전인교육대학', '앞선 지식과 기술 개발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중심대학'을 4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최고의 미래인재 육성', '최상의 연구역량 확보',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 '최대의 재정기반 확충', '최강의 대외협력체계 구축', '최선의 분권행정 구현' 등 질적 발전을 주도해 나갈 6대 선진화 전략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47개의 추진과제와 175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됐다.

글로벌시대 국제화 선도과 학생선발 선진화

무엇보다 제주대의 가장 큰 역할은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능한 의사가 배출되고, 국제화된 법조인을 키우게 될 법학전문대학원이 본 제도에 올라 곧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제주대는 '세계인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13개국 44개 주요대학과 자매결연하고 있는 제주대는 매년 학기와 방학기간을 이용, 이들 학교에 3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유학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재학생의 20%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학생 선발의 선진화 구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입학전형의 글로벌화 ▷입학사정관제 도입 ▷입학전



제주대학교가 오는 2012년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확정된 '선진화 정책 실천 로드맵'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발전을 위한 핵심목표로 요약된다.

형의 특성화 및 전형방법의 다양화 ▷입학전형 업무의 전문화 과제 등이 포함됐다.

입학전형의 글로벌화와 관련, 오는 2020년까지 재학생의 20%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유치한다. 제주대의 외국인 유학생은 2005년 181명을 시작으로 2008년 505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1학기 271명, 2학기 352명이 학부와 대학원, 복수학위, 교환학생 등으로 수학했다. 외국인 유학생 확대 유치를 위해 외국인 입학전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 대학원의 외국인 입학전형 업무 창구를 단일화한다.

오는 2012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학생들의 감춰진 가능성을 발굴하는 작업이야말로 대학의 발전과 도약의 출발점이자 대학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수시모집에서 글로벌 미래교사 전형과 교양추천자 전형을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특히 수시모집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인 경우 제주해녀의 자녀도 대상자에 포함하여 제주지역 특색을 반영한다.

명품대학 도약 위한 '직원 인사관리' 강화

명품대학 도약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직무역량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복무태도를 상시점검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직무역량 평가제'는 우수 직원 양성을 목표로 승진 및 성과 평가시 각 직원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평가는 국어 활용 역량, 직급별 교육과정 실적, 외국어 역량, 정보화 역량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정량화한 직무역량 포인트 가점을 적용해 승진과 성과급 심사시 적용된다. 특히 국어 활용 역량도 평가지표화하고 있어 외국어 활용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와 차별화한다.

'본부 부서 책임자 드래프제'는 부서 책임자의 업무성과와 책임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인사부서에서 각종 인사를 일괄적으로 조정·배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사부서가 각 부서의 장과 협의해 배치하는 제도다. 이는 '성과중심형 조직'으로 변화해 나가기 위한 첫 시도로 시행 결과 평가 후 점차적으로 직종별, 직급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직원들에 대한 직무수행태도 평가도 강화한다. 시간 때우기식 근무나 수동적 복무 자세, 불친절 등 잘못된 복무태도를 바꿀수 있다는 것이다. '성과급 평가 시스템'도 혁신해 직무역량 평가와 직무

수행 태도를 성과급 평가에 직접 반영한다. 이는 열정과 활기가 가득 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대학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대학발전 토대가 될 10대 중점실천과제

10대 중점 실천과제는 ▷대학발전기금 1000억원 조성 프로젝트 ▷취업률 70% 이상 향상 ▷국내 20위권 대학 진입을 위한 역량 강화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 창출 ▷장학금 수혜율 국·공립대학 상위 20% 수준 ▷옛 대학병원 부지의 적절한 활용 ▷문화교류관 건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유치 ▷조직 재설계 및 성과역량 강화기반 조성 ▷미래발전연구단 운영 ▷최고의 교육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러한 중점과제 실천을 위해 올해 48.9%인 졸업생 취업률을 2013년까지 70%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취업전략본부와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를 신설했고, 취업상담 강화와 실제 실무에 쓰일 취업 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한다. 현재 580억원 수준인 발전기금도 1000억원까지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자율적 재정 기반 확대를 위한 대학발전기금 모금 운동은 지금까지 벌여왔던 거금의 기금 유치는 물론 기업과 연계한 목적형 건물 신축 기부 추진, '티끌 모아 태산' 전략을 함께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대는 완벽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꾸준한 투자도 계속한다. 학내 모바일시스템 구축과 첨단 멀티미디어 강의실 확충, 첨단 그린캠퍼스 조성 계획이 마련됐다. 장학금 수혜율도 상향조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부터 기성회비 장학금 재원을 11%까지 끌어올린다. 또 발전기금에서도 장학기금 재원으로 2억원을 추가 책정한다. 이를 통해 전국 국공립대학 장학금 수혜율 상위 20%에 진입하며, 우수 신입생 유치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앞으로 기업체와 연계해 국내 및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 일정기간 동안 사회나 기업에서 현장체험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기르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폭을 더욱 넓히기로 했다.

제주대학교의 세계의 명품대학을 향한 분주한 발걸음에 '전국 명품대학 20위 진입'의 꿈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을 전망이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 부속시설 탐방 ⑤마필산업연구센터

제주대가 '마필산업메카'로 뜬다



마필산업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웰빙승마교실에서 수강생들이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맹수가 서식하지 않고 도서지역이라서 말에게 옮길 수 있는 악성 전염병을 미리 차단해 낼 수 있는 청정지역이다. 현재 제주도는 국내 말 사육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마필 산업 중 하나인 승마는 선진국에서 보듯 요트와 더불어 새로운 여가생활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웰빙 열풍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승마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마 산업 전반에 걸쳐 마필산업연구센터(센터장 강민수 생명공학부 교수)가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센터에서는 경주마·승용마의 생산과 같은 1차 산업과 말고기 도축 가공, 관절염 및 골다공증 등에 유효한 말뼈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생산 등을 하는 2차산업, 더불어 영주십이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고수목마를 관광자원으로 한 3차산업까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미 센터에서는 평생교육원 웰빙승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개설된 지 12년째로 현재 승마교육지도사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고급심화과정 등 매주 주말에 7개반을 운영하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 업적도 마필산업연구센터가 문을 연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됐다. 뿐만 아니라 산업대학원 석사과정에 말산업학과가 개설돼 있다. 마필전문가를 포함해 이 분야에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정승우 기자

2011학년도 전과시행 사전 안내

1. 전과대상

가. 2011년 1월 현재 1.2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2011년 3월 2, 3학년 진급예정자와 2011학년도 제1학기에 2, 3학년 제1학기 복학예정자
나. 2011년 3월 현재 재학 또는 복학예정인 상업교육과 학생(2007년 2월이 후 졸업에 관한 모든 이수사항을 만족하고도 졸업을 연기한 자는 제외)

2. 전과구분

가. 모집단위간 전과(이하 "일반전과"라 함)는 학사과정의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으로 입학정원(전공 또는 학과별 배분정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범대학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재적인원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 모집단위간 전과는 주간에서 주간으로, 야간에서 야간으로의 전과를 의미함.

나. 모집단위내 전과는 모집단위 내에서 전공 또는 학과간 이동으로 모집단위에서 전공 또는 학과가 배정된 이후, 배정인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주·야간 전과는 주간과 야간과정에서 모집단위 정원보다 재적생 수가 적은 경우에 한해 제적자수 범위만큼 주간과 야간 과정간 전과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전과는 2011년 3월에 재학 또는 복학 예정인 상업 교육과 학생에 대하여 전과의 정원에 관계없이 타 모집단위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의예과, 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와 간호학과 과로의 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3. 전과 허용인원

가. 일반전과는 전입과 전출 각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이며, 수의예과 및 간호학과는 정원보다 재적생수가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정원에 미달된 범위에서 전입 허용

나. 사범대학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재적인원이 입학정원의 1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미달된 범위 내에서 전입 허용

다. 모집단위내 전과는 전공 또는 학과 배정인원의 20% 범위 이내에서 대학 별 모집단위의 결정사항에 의함

라. 주·야간 전과는 산정된 여석 인원

4. 전과 제한사항

가. 2학년 일반전과 실시 후 전과 허가인원이 전출정원에 도달한 학과(전공)는 익년도 3학년 전과에 대하여 전과원서를 교부할 수 없음

나. 일반학과에서 수의학과, 교육대학으로의 전과할 수 없음

다.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자는 전과할 수 없음

라. 재학 중의 전과는 1회에 한함

5. 전형방법

무시험 전형으로서 2010학년도 제2학기까지의 학업 성적(제적학기 성적 포함, 휴학자는 기 이수한 성적)순에 의하여 전형하되, 예·체능계와 사범대학으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희망 학과별 실기고사·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함. (상업교육과 학생중 사범대학으로의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음)

전출자 제한

- ① 전형방법에 의거 선발한 허가예정 인원이 소속 모집단위별(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의 20% 이상일 경우에는 각 학과의 전출제한 기준에 의거 제한 함
- ② 학과의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예정자에 대하여 성적에 따른 선별순위로 20% 이내까지 결정처리한 후
- ③ 전입인원에 미달된 인원만큼 미달학과(전공)의 지원자에 대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2011. 1. 17(월) ~ 1. 19(수) 소속 학과

나. 원서접수 : 2011. 1. 17(월) ~ 1. 19(수) 교무처 학사과

다. 면접·실기고사 : 2011. 1. 21(금) [세부일정 별도 공지]

7. 전과 허가

가. 전과 허가자 발표 : 2011. 2. 1.(화)

나. 전과 허가일자 : 2011. 3. 2(수)

8. 수강신청

전과 허가자는 전과한 학과(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수강신청 또는 전적학과의 기 수강신청 사항 변경조치

9. 기타사항

가. 전과가 허가되면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복학예정자 중 전과가 허가되었으나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2011. 3. 8.)내에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과가 취소됨.

나. 전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등록금은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함

다.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에서 필요한 졸업학점 및 교과과정 과정별 이수학점을 적용받음

라. 전과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과한 학과의 전공교과목이 있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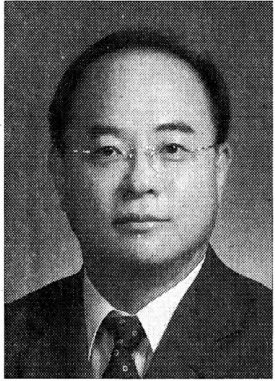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 학사과(☎754-2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1. 22.

제 주 대 학 교 총 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출구전략의 시사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출구전략이 변수 물가상승 원인파악이 중요... 정책의 우선목표 명확해야



강기춘(경제학과) 교수

2008년 9월 16일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금융기관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 침체가 가속화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경기순환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니라 위기 상황이었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정책수단 역시 정상적인 경기대책이 아니라 파산과 실업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들이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었다.

각국은 경제정책을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확장적 통화정책의 경우 각국은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G3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양적 완화정책을 통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또한 각국은 재정수지 악화와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다.

한국 역시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신용경색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국내은행의 외화조달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 외화 유동성 및 원화 유동성도 부족하였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고,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한국은행은 긴급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고 환율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단기간에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2008년 10월 5.25%→2009년 2월 2.0%), 원화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민간신용 위축 방어를 위한 은행의 대출여력 확대 지원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도모하고 실물경기 침체를 방어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은 외화 및 원화의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였는데 그 결과 2009년 4월 이후 환율은 안정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채권시장의 불안이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각국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특히, 금융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실물경기 급락세가 억제되고 금융시장도 안정되어 갔지만 각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및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비상조치들을 너무 오래 유지할 경우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형성,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므로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논의가 2009년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출구전략이란 위기 타개를 위해 실시한 각종 비상조치, 예외적인 정책을 해제하여, 정상시의 정책이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전략을 의미한다.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2009년 1월 미국 연방준비은행 산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성명서에서 "연방준비은행 대차대조표의 규모와 구성을 신중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금융시장의 파란한 유동성이 자산가격 버블 및 금융위기를 재연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급격히 상승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하에 주요국들은 우선적으로 과잉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을 시행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을 최초로 시도한 국가는 이스라엘로 2009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하였고,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2009년 10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p 인상하였다. 한편, G20 국가 중 출구전략을 시도한 국가는 호주와 인도인데 호주는 2008년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인 2009년 10월 기준금리를 3.0%에서 3.25%로 0.25%p 인상하였고, 인도는 2009년 10월 일종의 정책금리인 법정유동성비율(SLR)을 24%에서 25%로 1%p 인상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융회사 유동성 공급이나 단기 신용시장 지원 등의 통화정책은 대폭 축소하였으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동성 흡수, 금리인상, 모기지담보자산 매각 등의 점진적인 절차를 통해 출구전략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은 가파른 물가상승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급준비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통화공급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자 국내에서도 2009년 7월부터 정책당국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자주 일어나 외화 및 원화의 과잉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을 시행하였고, 중소기업 등 금융지원책을 종료하였으며, 2010년 7월 한국은행은 1년 5개월 만에 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11월에도 0.25%p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였다. 이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물가불안에 대응하고, 그동안 금리인상을 막았던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인한 원화가치 절상에 대한 부담감이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구전략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주요 선진국의 출구전략은 신용국보다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급격한 출구전략 시행 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구전략의 최적 시기를 잘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출구전략을 시행해

가면서도 몇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물가상승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물가상승 압력이 경기과열 및 유동성 과열과 같은 수요측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출구전략의 시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생산 감소 및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출구전략을 통한 물가상승 압력 완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정책목표 간 조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구전략의 우선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회복 패턴 및 주요국의 출구전략 움직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자산가격 버블 방지와 내수회복이라는 정책목표 간 조화를 최대한 고려하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정책의 우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한 후 출구전략의 강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Lucas교수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주변적인 뿐, 민간에서 새로운 동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출구전략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비정상적인 조치를 철회하는 출구전략을 실시하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권의 책

“그 마을 사람들은 왜 서로를 죽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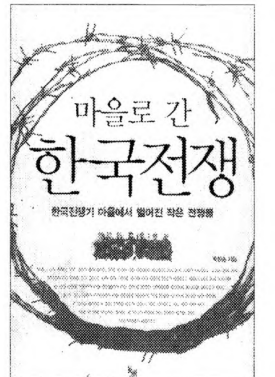
제주 4·3연구에도 방법론 도입을

한국현대사는 한국전쟁이라는 구원을 기다리는 과거화하기 어려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전시 상황에 대한 실증 연구와 일차 자료에 기초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들은 많다. 이 책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전쟁,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혹은 보통 사람들이 겪은 한국전쟁의 역사 서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의 좌우 대립과 충돌이 현상적으로는 좌우의 이념 갈등에서 말미암은 것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지주-소작인 간의 계급적 대립관계에 그 뿌리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과연 농촌마을에서 벌어진 좌우대립과 충돌이 이념과 계급의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이다.

이 책은 총론과 5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1장에서 4장까지의 사례지역들이 한국전쟁기에 주로 쟁야지대, 혹은 도서지방의 마을들에서 있었던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반해, 5장은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을 사례들 간 비교점근을 통해 마을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배경이 달랐다는 것, 집안과 가문 그리고 인척관계가 국가나 이념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전쟁기 민간 사이에 커다란 충돌을 불러온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으로 종교와 이념 간의 갈등이 중요하였음을 천주교와 공산주의자들 간의 충돌에 대한 연구로 보여준다.

대체로 한 마을사람들이 겪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경험일지라도 개인들이 처한 과거의 위치와 현재의 상황에 따라 '기억'되거나 '망각'되기도 한다. 그들의 사회적 기억과 공유하고 있는 지식의 많은 부분은 말해지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채 '격리'되어 암묵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과 '망각'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둔 공동체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며 특정한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 기억이 권력구조와 밀접하



《마을로 간 한국전쟁》

박찬승 지음 / 들배개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개인적 기억일지라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대 중들이 주장하는 해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쟁기억의 이념적 불균형, 공식적 기억과 비공식적 기억간의 괴리, 그리고 세대적 단절 등이 한국전쟁의 기억의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또한 전쟁기억은 지역사회의 구체적 지형 속에서 재구성되는 것이어서 투쟁의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생존해있고 또 서로 아는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담합적 침묵'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회피적 담합을 뚫고 과거의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침묵면접을 통해 확보되는 전쟁경험에 대한 구술은 공식적 역사와 사적 기억의 차이를 확인하거나 권력에 의해 은폐된 사실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며, 동시에 분단체제 하에서 살아온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로서의 존재론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이때 사적 기억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억과 해석은 전대, 계층, 연령(혹은 인생주기에서 해석자가 처한 상황), 직업, 교육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2010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 책에서 취한 관점이나 방법론으로 제주4.3에 접근한다면 그동안의 제주4.3연구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염미경 사회교육과 교수

해외견학 및 연수, 기업방문

세계자연유산유적지, 세계문화유산유적지, 세계유명명산, 해외감귤산업체방문, 해외물산업체방문
농업, 축산업기관방문 및 연수, 산업별 박람회 - 반도체, 기계, 건축, 제약, 바이오, 식품 등..

중국 북경/만리장성 4일 상해/항주/소주 4일 상해/장가계 5일 상해/황산 5일 상해/계림 5일 서안/진시항릉 5일 해남도 5일	일본 동경/후지산 4일 오사카/나라/코토 4일 후쿠오카 4일 북해도 4일	대만 4일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5일 필리핀 5일 마닐라 8일 인도 8일 인도/젠시스 5일 베트남 5일 베트남북부/하롱베이 5일	홍콩 4일 지중해 8일 터키/그리스 5일 캄보디아 5일 앙코르왓 5일 태국 5일 방콕/파타야 5일	호주 6일 시드니 미주 미등부 8일 미서부 8일 케나다 유럽 서유럽 8일 동유럽 8일 북유럽
---	---	--	---	--

하남투어전론 판매대리점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JR투어** 일정 및 견적문의 TEL. 748-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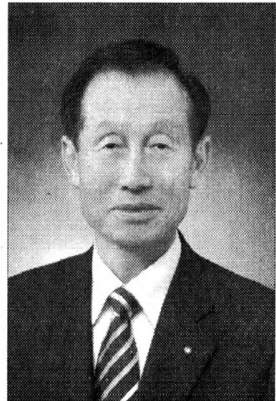
담당: 문인관 [일어일문학과졸업] H.P: 010-4693-2394

제이알투어(주) 제주시 연동 2312-1, 국외여행업등록 94호, 제주도의 토종기업, 34년 전통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해외여행, 국내여행, 렌트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

■ 외국인 이주민은 새로운 이웃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이해가 소통의 첫걸음

도내 외국인 7343명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껴안아야



김정우 제주이주민센터장

세계화·개방화 확대와 국경을 넘는 이주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도 인적 구성이 급변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소위 3D 업종 취업 기피에 따른 일부 업종의 노동력 부족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촉진시켜오고 있고, 국내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현상과 국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결혼 기피,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남성들이 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기 힘들어지면서 국제결혼이 보편화되어 결혼이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외국인 젊은이들이 한국을 알고 싶어 유학생으로 한국을 찾아오고 있어 유학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0월말 현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단기체류자를 포함해서 180여 개국 124만9,858명에 이른다. 1995년 12월 말 당시 외국인수가 26만9,641명인 것을 감안하면 14년 10개월 만에 무려 4.6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09년 12월 말 현재 남한의 주민등록인구 49,77만 3,145명의 약 2.5%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들 중에 55만3,900명은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고, 결혼이민자는 14만63명으로 그 중86.9%는 여성 결혼이민자로서 대다수가 아시아권 여성들이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13.1%이다. 혼인귀화자가 4만8,367명인 것을 감안할 때, 결혼이민자의 총수는 18만8,000명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주민 총수는 7,343명으로 주

민등록인구 56만2,663명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외국인근로자가 2,563명(34.9%), 국적취득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가 1,609명(21.9%), 외국인주민 자녀가 1,290명(17.6%), 유학생이 857명(11.7%), 재외동포가 252명(3.4%)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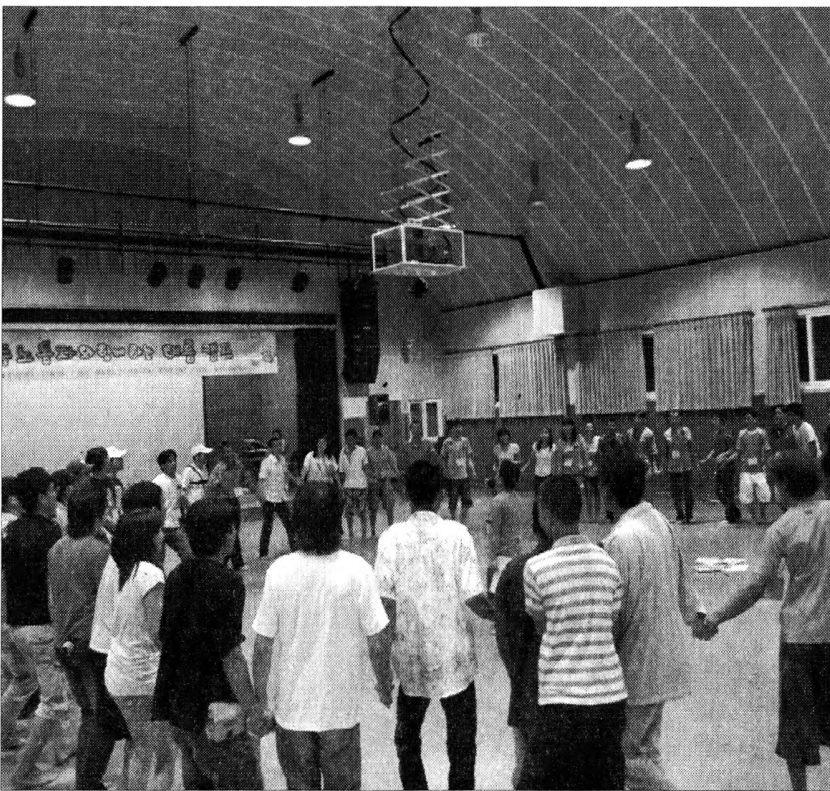
이 중에 결혼이민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혼인귀화자와 합하여 중국 718명(조선족 207명 포함, 44.6%), 베트남 423명(26.3%), 필리핀 228명(14.2%), 일본 69명(4.3%), 캄보디아 41명(2.5%), 우즈베키스탄 17명(1.1%), 태국 13명(0.8%), 네팔 12명(0.7%), 몽골 11명(0.7%) 순이다.

비율로 볼 때 제주도는 타시도보다 거주 외국인수가 적은 편이지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외국인과 외국 자본 유인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의 특성을 구축해간다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증가로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지만, 다원주의 국가의 경험이 없고 오랫동안 단일민족·순혈주의 신화 속에 집착해 온 한국인들은 현실화한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지 못하고 다양한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관련 정책이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인권이 존중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데 있다. 문제가 많았던 산업연수생 제도가 2004년 고용허가제로 바뀌면서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제한적인 체류 및 취업 자격과 기한 문제,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아직도 문제가 많다. 이들의 겪는 공통적인 사례로는 저임금, 임금 체불, 열악한 작업 환경과 산업 재해, 퇴직금 미지급, 폭력, 욕설과 조롱, 부당 해고, 강제 출국, 문화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한국 사회에서의 인종차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당면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우선 결혼홍보가 주로 국제결혼개업체일 경우 나타나는 사안이다.



지난 여름에 열린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여름캠프'

무조건 결혼을 성사시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부실, 인권 침해적이고 인신 매매적인 중개 절차, 중개 서비스 내용이나 중개과정에 대한 행정·사법 당국 등의 감독 미흡 등을 들 수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상당수 배우자들의 직업이 1차 산업이나 단순 노동에 종사하거나 미취업 등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가계를 돌기 위한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육구가 높으나 언어소통 문제와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구직에 장애를 받고, 설사 취직이 된다 해도 전문성을 살리는 직종보다 단순한 근로 등 직종을 제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소통의 한계와 문화차이, 가부장적인 한국 가정문화로 인한 갈등은 가정폭력을 유발하고 쉽게 이혼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상도 적지 않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가임층에 속하기 때문에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가 누구보다 필요한 처지이지만 한국어 미숙과 문화 차이에서 오는 문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녀가 취학할 경우 어머니가 한국의 교육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가정에서의 교육역량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처럼 이들은 다문화 사회를 맞고도 그에 상응하는 의식 구조와 자세를 지니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도 많다. 이들의 당면한 문제를 줄여가기 위해서 한국인은 이들이 "자기 꿈을 갖고 삶을 개척하기 위해 당당히 한국으로 이주해 온 새로운 이웃"으로 인정하고, 이웃이기에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 문화의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다문화가족 지원에는 광범한 효과를 내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까지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국제자유도시와 세계 평화의 섬이다. 행정당국과 시민단체, 그리고 도민 모두가 이들이 제주 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잘 적응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여 공존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증진시키는 인류애를 구현하는 일이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와 제주도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확신한다.

■ 시민네트워크와 통하다 ④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감시' 우리가 맡는다

환경보존 경각심 알리고 싶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외국에서 흘러들어온 해양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 현복자, 오영덕). 생태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여 1991년에 '제주기행모임'을 만든 것이 이 단체의 첫 시작이었다.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섬을 지켜내기 위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이 단체는 해군기지 예정지, 골프장 등 제주의 환경이 파괴되는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 더불어 도민 모두가 환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김동주 대안사회팀장은 "꽃자왈 보존, 해군기지 저지 등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해군기지는 탐돔의 3배나 되는 바다를 매립하는 사업으로 생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각종 박물관 등 관광시설을 지으며 방대한 개발을 묵인하고 있다. 환경을 제주의 힘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개발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윤용택(철학과 교수) 공동의장은 "제주가 제주다움을 잃어버린다면 관광객들이 굳이 이곳을 찾을 이유가 없다"며 "제주의 미래는 서늘이나 두바이가 아닌 자연본연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을 지켜서 '제주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길은 험난하다. 환경을 파괴하는 제주도의 정책에 당연히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순수하게 회비와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으로 감를 들인 양말을 판매하고 연말에 일일주점도 연다. 그래도 환경운동을 하는 데 드는 돈을 모두 충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윤 공동의장은 "환경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려면 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을 안 받아 어려움이 크지만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절실하다. 환경은 시민단체의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용택 공동의장은 "자본의 위력 앞에 언론도 정치도 무릎 꿇고 있다"며 "무너져가는 환경을 앞세우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사회에서 자유로운 곳인 대학에서마저 입을 닫아버리면 제주 환경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 대학생들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환경에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한다"며 "대학생의 삶도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나의 문제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 지역경제 바로알기 ⑦에필로그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 지역경제 모습도 변해

착한장터 · 제주사랑상품권 · 공정여행 등이 대안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사회적 기업이 있다. 일반 기업처럼 영리를 추구하지만 그 추구한 영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착한 기업이다. 현재 도내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10군데, 전국에는 406개가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취약계층들은 장애인, 노인, 실업자, 오랜 기간의 경력단절여성 등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일자리 등 사회적 서비스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내 직장엔 행복한 일터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평화의 마을'. 이곳은 제주도 사회적 기업 1호로 장애인을 채용해 육류를 가공하는 회사다. 이곳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서른살에 정식으로 찾은 일자이다. 그 전에는 아르바이트로 만족해야 했다. 김씨는 지적장애 2급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곳에서 햄,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 공정과정에서 보조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와 같은 지적장애인 20명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모두 그 전에는 취직하기가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힘들었지만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생활도 안정됐다. 그녀는 '평화의 마을'은 자신의 행복한 일터라고 자부한다. 특히 '평화의 마을'은 제주산원료를 가지고

수제햄을 만든다. 또한 인공 색소 방부제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은 착한 사람들이 착한 음식을 만드는 곳인 것이다. 정말 행복한 일터라고 할만하다.

도내 10군데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은 150여명. 그들은 평균 1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들에게 단지 복지적인 측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응과 직업훈련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회에서 온갖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왔던 이들에게 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마련해준 것이다. 더욱이 영리를 추구하고 창출되는 이윤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20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출범했다.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여기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으로 본격 인증받기 전 단계에 있는 기업이다.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색단계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지기 위한 여건 조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진리다. 어렵고 소외받는 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조금 더 취약계층들을 돌아보고 착한소비를 직접 실현해야 한다. 좋은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참여를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것 이다. 내가 구입한 물건 하나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소비가 바로 윤리적인 소비이며 착한 소비이다.

도내 경제주체 육성이 우선

이제까지 지면을 통해 총 7차례에 걸쳐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 경제주체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외부자본과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제주도내 경제주체들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행위를 넘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 소비하여 지역의 생산자를 돕고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육성해야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다.

지역경제 선순환이 매끄럽지 않게 돌아간다면 지역은 파멸해지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지역의 인구는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소비가 변화하면 생산의 모습이 바뀌고 착한생산은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키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자원을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비의 모습 변화다. 소비

의 모습이 바뀌면 지역경제의 모습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할인가격만을 쫓는 소비행태는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이 과정에서 영세한 지역의 생산자는 쓰러지고 거대자본을 가진 유통회사들이 살아남아 지역자본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위한 작은 노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노형 근린공원에서 실시되는 착한장터나, 지역자본 지역 안에서 순환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로서 '제주사랑 상품권' 또 최근 떠오르는 공정여행 등은 제주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호형(언론홍보 4)

■ 무론유설 ■

대학생활때 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대학생활 때 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한 대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제기된 질문 이라면서 1위를 한 답변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후회였다고 알려주었다. 그 대답은 예 측이 되었다. 나도 대학을 졸업할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후회가 있었고 회(회사CEO, 은행임원, 자기회사 개척을 한 오우너사장 등이 포함된)동창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던 답변이었다. 그리고 그 욕구는 나이가 들어 도 사라지는 것 같진 않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타고 태어났으며, 배우는 것을 즐거워한다. 교수로서 강의 중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하게 된다. 이유는 학생들이 원하는 심도있는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영어학(영문법)이 전공이지만, 돌이켜보면 고등 학교 시절 20개 이상의 교과를 배우면서 제일 싫어하던 과목이 국문법이었다. 대학시절에는 영문학이 인기를 누리던 시대로 대학이었던 문학을 애호할 줄 알아야 하는 시대였다. 영어학개론이라는 시간은 낯설었고 교수의 모호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간고사를 앞두고 교재였던 Lillis의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를 원서로 읽게 되었다. 그 교재는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책을 읽는 동안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관점과 내용에 빠져들었다. 사전을 찾아야 하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촘스키 언

어학에 흥미를 느끼게 된 첫 순간이었다. 촘스키 언어학을 전공으로 하게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이다. 석사과정을 지원하면서 문학 대신 언어학을 선택했다. 언어학이 아니라 언어학의 목표(보편문법의 정체를 밝히기)에 매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철학적 믿음이 확실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인간을 다른 생물들과 구별지워주는 결정적인 능력이 언어능력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언어학의 세계에 탐닉해서 재미를 느끼기까지는, 박사논문을 쓰면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한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촘스키 언어학은 입문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입문을 하게 되면 빠져들게하는 매력이었다. 언어의 통사구조를 다루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학문으로 60-70년대 구절구조주의로 생성문법이 등장했고 지속적으로 문법에 대한 새 관점을 소개했다.

일반에게도 알려진 보편문법이란 용어의 개념은 모든 인간 언어가 공유하는 통사구조를 추출해보면 몇몇 원리와 개별언어의 차이를 설명해줄 변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가설에 기반을 두었고, 그 원리와 변인으로 언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 놀개념이 도입되었다. 모놀이란 그 자체가 하나의 완비성을 가지면서 다른 모놀들과 결합되어 더 큰 하나로 발전되어가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90년대 부터 그 이론은 최소주의 접근법으로 변화해 갔다. 촘스키 언어학은 최소주의 접근법으로 발전한 이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영어교육 관점에서 보면 언어습득론, 심리언어학 분야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학문에도 트렌드가 있다. 오랜만에 촘스키 학회에 참석했다니 언어진화론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확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언어기 저능의 정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촘스키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

한 학자와 함께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상이한 주장을 제기하던 그들이 공동조율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어떤 질문이 연구 문제로 선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조율부터 시작했다. 상대방 이론에 대한 생산성 있는 비판 대신 생산성 있는 진리 탐색을 위해 함께 연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Larson et al이 편집한 The Evolution of Human Language (2010)를 재미있게 읽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언어생물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알리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이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으면 어떤 분야든 힘든 입문과정을 극복해야 비로소 재미를 아는 전문가의 경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싶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지에 대한 미련이 아닐까? 아직 젊은 그대들은 후회가 없길 바란다.



홍경선
교육대학 영어교육전공

대학에서 키워주어야 할 힘

금번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의 목표를 재 정비 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중이다. 사회적 요구와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여 교육과정 내용을 고민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는 우리 대학의 이상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일하기에 단지 통과 의례로만 생각할 수 없다.

이번 개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양 과정에 '핵심역량 교과목'을 설치하려는 것이다. 기존의 '학문 기초 교양(의사소통, 외국어, 논리적 사고)' 및 '핵심 교양(1영역: 언어와 문화 / 2영역: 역사와 철학 / 3영역: 사회와 문화 / 4영역: 자연과 과학 / 5영역: 예술과 건강)'과 별도로 이 교과목을 운영하려 한다. 이 '핵심역량 교과목'에는 '의사소통 능력', '종합적 사고력', '자원/정보/기술 활용 능력', '글로벌 역량', '자기관리 역량', '대인관계 능력'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과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먼저, 이 '핵심역량 교과목'이 심도 있는 철학적·교육적 고민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역량'이란 '어떤 일을 해 낼 수 있는 힘'이다. '핵심역량'은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힘'일 것이다. 대학의 존재 이유와 대학에서 가르쳐야 하는 인간상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교과목의 '핵심역량'은 '직업기초능력'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었다. '핵심역량 교과목'에 설치된 6개 영역은 다음 아닌,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시스템(K-CESA)'의 6개 평가 영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에서 규정하는 '핵심역량'은 '직업 능력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증인과 직업인 양성에 초점을 둔 핵심역량 교과목 운영이 우려된다.

또 다른 문제는 6개 영역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각각의 교과목을 만들겠다는 점에 있다. 15주 단기 완성으로 역량을 키우려 한다. 강의를 받기 전에 역량을 진단하고

강의를 받은 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역량이 키워졌는지 확인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시스템(K-CESA)'의 평가 자료는 학생들의 교육역량 진단과 직업 및 진로 모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각 영역에 따른 단독 교과목 편성은 각 역량의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집중 강화를 편성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6개 역량은 한 교수의 한 강의를 통해 키워질 수 없다. 다양한 강좌와 다양한 교수들의 협력으로 가능하다. 각 역량에 해당하는 단독 강의를 편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강좌들을 이 역량들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강좌들이 어떤 역량들과 연결되는지 조사하고,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보충할 강의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시, "교양교육의 내실화와 직업세계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융합과 통섭 교육과정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대학의 목표에서 드러난다. 이 목표에는 구체적인 성과나 기준으로 포착할 수 없는 많은 역량들이 포함될 수 있다. 당장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기 어렵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을 키워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명품 대학', '학부 선진화', '경쟁력 강화', '핵심역량 강화' 등의 거창한 구호로 치장되기보다는 내실 있게 자신을 성찰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과정이 운영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온 세상 여기 저기 흩어져,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좋은 시민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외부의 잘못된 잣대나 지표에 흔들림 없이 소신 있는 교육을 하며, 현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반대로 주향할 수 있는 대학의 지혜와 용기가 잠시 그립다.

■ 김두림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기부'를 보고

저 바다의 은물결처럼

아름다운 섬이 어찌를 우쭐대게 한다. 그 속의 산과 들이 그렇고 올레길이 그러하다. 푸른 바다가 품어 안고 있어 나그네가 눈독을 들이는 곳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보호받는 섬이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늘 꿈과 낭만을 안겨주는 제주. 요즘 분위기를 타며 대자연의 보고(寶庫)로 각광받고 있다.

화창한 어느 날, 한 노인을 우연히 알게 됐다. 그 노인의 아름다운 기부가 시중의 화제거리다. 자기가 소유한 목장부지인 일야 사민주원어 평을 고향의 대학발전기금으로 쾌척해 모두의 마음을 출렁이게 하고 있다. 아니, 그게 시가(時價)로 삼백여억 원이나 되는 땅이라니!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기부하게 된 동기(動機)다. 자연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서 그랬다는 것이다.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다. 동기 자체가 놀라움을 넘어 자못 압송하기까지 하다. 마음 속에 단련된 문을 활짝 열게 한 뭔가 분명히 있다. 소중한 목장을 기부할 만큼 '자연에 감사'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자연은 보물창고와 같다. 혼자 독점할 게 아니다. 은혜로운 자연의 혜택에 감사한다. 고통 받는 환자들이 보물창고를 이용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길임을 확인했다. 이 목장부지에 우리나라 최고의 노인병원과 요양시설을 제주대학에서 건립해주길 바란다."

그분은 얼굴에 함박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토록 호감 있고 의연하게 기부 동기와 바람을 밝혀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마음이 사랑으로 쫓아지면 몸도 건강하게 되나 보다. 86세의 나이가 만기지를 만들 정정했다. 목장을 인수한 지는 삼십 년이 넘었다고 한다. 그 후 줄곧 그 목장에서 살아온 것이다. 가족을 사육하면서 가시명굴과 잡목을 정리하고 산림을 보호 관리해온 노인. 파란 하늘에서 조그마한 기부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기에 그 선행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가 보다.

목장 주인인 그분은 제주시 오동동 출신인 김두림 선생이다. 고향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광주에서 대학을 나왔다. 그곳 광주에서 동물병원장과 축협조합장, 지역 수의사회장도 역임한 분이다. 고향을 잊지 못해 자신이 나귀 뽕돌린 한라산 자락의 고향마을 인근에 있는 목장을 구입했다. 거기서 사슴과 소를 손수 키우는 세월 동안, 애지중지 가꿔오며 온갖 애환만 정성이 다 지든 목장이 아니던가. 자기의 전 재산이다시피 한 그 목장을 선포 내놓은 노인이 놀랄지도 존경스럽다.

한라산 속 목장은 공해가 거의 없는 곳이다. 수의사인 그분은 거기서 관리 인부들과 함께 자연에 묻혀 생활해왔다. 본인 자신은 물론 인부들 중에 질환을 갖고 있던 이들이 현저하게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았다. 폐결핵이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에 목장의 치유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직접 체감한 거였다. 자연 치유였다. 한라산의 맑은 물과 청정한 공기의 조화가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치유하고 있음에다. 자연에 감사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밑바닥으로 끌어당겨주던 중력(重力)조차 감사한 순간이었다."

어느 우주의인 체험담 한토막이다. 지구로 살아가는 귀환한 순간의 그 교박이 절절하다. 숨 쉬는 공기와 마실 물, 그리고 편안히 일하고 쉬는 장소를 내주는 게 이 자연이다. 그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인간의 병까지 치유해주고 있지 않나. 자연은 우리의 요람이요, 일터요, 생명의 원천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고마움을 다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다. 잊기 십상이다.

김두림 선생은 만성질환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다. 가족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분이지 않은가. 남에게 말 못할 일도 많았을 거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람이 없으면, 생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회생과 봉사정신

이 있어야만 한다. 불치의 병이라 여겼던 자신의 질병을 치유 받아 그 기쁨이 과연 어땠을까. 자연이 베풀어준 사랑에 대한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

살아가노라던 줄 걷고 행복만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예기치 않은 힘듦과 어려운 순간이 닥친다. 비록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도 참고 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괴로움을 극복하고 나면 삶에 한층 감사하게 되고 성숙해진다.

인생길은 사람마다 다르다. 한데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는 모두 같게 마련이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어떤 삶을 살다 갈 것인가, 즉 생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이다.

그 노인은 꿈과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채우고 있다. 그 빛이 찬란하고 그 냄새가 향기롭다. 고향바다에 출렁이는 은빛물결처럼 그분의 선행이 눈부시다. 추사(秋史) 선생은 의녀(義女) 김만덕의 덕행을 찬양해 '은광연세(恩光衍世)'라고 글로 남겼다. 훗날 추사선생 같은 누군가가 이곳 제주에 온다면 오늘의 이 일을 뭐라 할까.

계절이 바뀌는 길목이다. 바닷물 위로 반짝이는 햇살이 곱다. 걸터앉은 바위를 바람이 부드럽게 넘고 있다. 갯벌새가 삼삼하다. 스스럼없이 우리가 받는 자연의 선물이다. 갈매기 울음소리와 파도소리가 까-악 찰떡 가슴을 울린다.

누군가가 지금 내게 묻고 있다. "자네, 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랑과 감사로 가슴은 뜨겁게 불타고 있는가."



오승호
수필가·전 제주해주본부장

■ 신임교수 릴레이 인터뷰 - 제갈윤석(체육학부·건강교육학 분야)

“체육학을 알려면 인문학적 지식 필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그만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9월1일자로 체육학부에 부임한 제갈윤석(체육학부) 교수의 말이다. 그는 바쁜 생활 속에 건강을 챙기지 않고 흡연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를 체육학부 교수가 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운동을 할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운동을 하더라도 몸짱열풍같은 트렌드에 의해서나 운동을 하지 생활의 일부로써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체육학부 교수를 하게 됐어요.”

그는 체육학부에서 건강교육이나 운동영양학, 운동생리학 등을 가르친다. 체육을 하는 데에 앞서 인간의 건강과 질적 성장을 위한 생활습관이나 운동을 하고 난 후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친다.

그가 제주도에 오게 된 큰 이유는 제주가 그의 연구에 있어서 탁월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떤 연구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육지는 교육부나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제주도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맥으로 자료를 얻기에도 용이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체육분야를 예체능분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체육학부 학생들 중에는 체육교육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이다.

“체육교육을 위해서는 체육교육, 체육사,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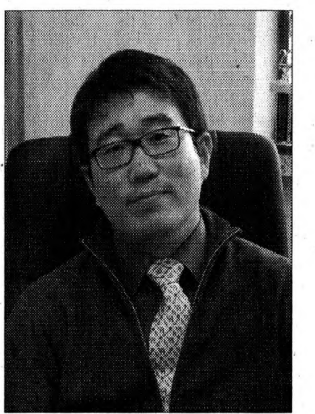
마케팅 같은 인문학적 분야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인문학적 부분을 접목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른 수업들도 들어보기를 권하죠.”

그는 강단에 섰을 때 학생들의 반응에 조금 놀랐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물렸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이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서 그런지 문화·교육적인 면에서 학생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놀라우면서도 보기 좋았습

니다.” 그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연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 건강을 위한 운동과 금연 등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런 그의 노력으로 제주대학교 학생들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현 기자



제갈윤석
체육학부 조교수

■ 독자기고 ■

“성실성 갖춘 지방대 출신 일 잘해요”

‘88만원 세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이 땅의 청년들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최저 임금을 의미하는 ‘1000유로 세대’가 등장할 정도로 청년실업은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최소한의 승차와 다수의 패자를 양산하는 현대사회의 ‘루저’들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씨구려 커피’, ‘별일 없이 산다’ 등의 우울한 정서를 담은 곡으로 큰 히트를 치고, 역설적으로 ‘루저’들을 위로한 장기간하는 자신의 한심한 처지를 인정하면서다 자조적인 루저 문화에 빠지지 말고 20대라는 중요한 시간을 제대로 보내자고 말했다.

장기간하는 미디어가 20대의 정서를 항상 즐겁게 묘사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표하고 “우리 팀은 승차도 아니고, 패자도 아니다. 승차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의 불안과 허무라고 본다”고 규정했다고 한다. 패자는 패자대로 자신들만의 사는 방식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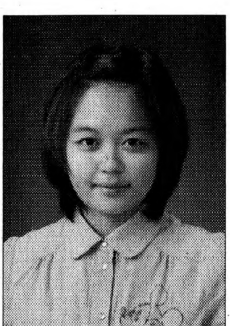
롯데그룹은 지난 8월, 특채로 지방대 졸업생 박세를 신입사원으로 선발했다. 롯데그룹 인사담당

자는 “성적도 출중했지만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성실함과 어려운 형편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줬다”며 채용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면접을 접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인터넷에는 “그래 봤자 지갑대(지방의 유명하지 않은 대학)란 댓글이 수십 개가 올라왔다고 한다. 박씨는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대 출신은 안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나 소위 ‘1군 대학’이라 불리는 대학에 비해 지방대는 불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박씨의 성실함처럼 자신만의 장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위너’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루저’만의 무언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인사담당자 대부분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의 기본 스펙은 갖추고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자신을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유난히 많이 들린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드라마와 드라마가 아닌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인생은 무한한 선택이 가능한 긍정의 얼굴을 하고 기회라는 재화를 미끼로 그 가치에 상응하는 용역을 요구하는 잔잔한 시장이라는 생각도 잊지 않고 떠오른다. 나의 시시함을 맥락 없이 인정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재미있는 것’을 찾는다. 남들과는 다른 것을 보고 배우며 나만의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다.

루저 문화는 ‘이긴 자만이 모든 걸 갖는다’는 사회에 대한 저항이자, 패배주의자로 남지 않겠다는 시대의 아픔이다. ‘루저’들은 그 나름의 정체성으로 더 큰 힘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홍명지
종이종문 1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오피니언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버려진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ress@jeju.ac.kr
홈페이지 http://news.jeju.ac.kr

기업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⑥오라관광

3연속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다양한 경험으로 쌓은 경쟁력 신호

오라관광? 생소한 듯 들리는 기업 같지만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 전문 기업이다. 제주그랜드호텔과 오라컨트리클럽이라는 이름은 쉽게 들어왔을 것이다. 바로 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오라관광이다. 오라관광은 제주 관광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77년 본격 출범해 33년간 제주관광에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다.

특1급 호텔인 제주그랜드호텔은 512개의 객실을 보유해 제주에서 최대 객실 수를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고급의 시설로 무장하고 있다. 또 제주국제공항과 10분 거리인 신제주 지역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카지노, 5개 국어 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춘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그랜드호텔은 지방호텔로서는 처음으로 1992년 천만 불 관광진흥상 수상 및 4회 연속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픈 이래로 2010년까지 객실 3백44만실 판매, 골프 내장인원 310만명 유치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오라컨트리클럽은 영주십경의 하나인 한라산 영구춘화 계곡을 따라 그림처럼 펼쳐지는 2,018,369㎡의 대자연 위에 국제수준의 36홀 코스를 갖춘 제주도의 대표적인 골프장이다. 오라컨트리클럽은 금년 KPGA 라시오펜캐시 캐리터 클래식, KPGA 조니워커 오픈 등 프로대회를 포함해 3년을 주기로 개최되는 한국, 대만, 일본 3개국 국가대표 대항전인 '네이비스컵' 골프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면서 국제적인 골프장으로 명성을 넓히고 있다. 또 전국 130여 개의 골프장 중 외국인 내장객 유치 1위라는 기록을 수년간 지키고 있다.

신뢰를 통한 벽이 없는 노사관계

오라관광은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20여년간 노사분규 없는 경쟁력 있는 사업장과 혁신경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임원들과 직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노사협력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사화합을 위해 오라관광 임직원들이 함께 올레길을 걷는 행사를 열었다.

오라관광은 매월 월례초회를 통해 직원들에게 회사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사안이 생길 있을 때마다 노사공동워크숍을 열어 대화의 장을 열고 있다. 또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원활한 노사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뤄진다. 또 공식적인 창구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임원과 직원들이 소통하고 있다. 먼저 직원들과 임원들이 함께 올레길을 걷거나 한라산 등반, 창사 체육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해 함께 협력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원들과 신입사원들이 조를 이뤄 독서를 하고 토론을 나누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고 있다.

오라관광 노사의 이와 같은 노력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노사관련 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라관광은 도내 최초로 2003년 신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2006년도에는 노사문화우수기업 재선정, 노사협조부문 제주상공인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3회 연속으로 노사문화 우수기업 기업에 선정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제주지역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

이다. 오라관광은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투명경영, 자율경영, 책임경영, 보람의 공동체 실현을 경영방침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전직원이 매월 급여 중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캠페인부터 사회복지시설 지원, 불우이웃 결연지원, 사내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노사가 함께 지역사회에서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또 오라컨트리클럽을 이용한 다양한 골프관련 체육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골프 꿈나무들을 위해 시간을 정해 그린피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 지역 학생들이 참가하는 각종 주니어 대회에는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체전 제주대표단이나 한국 국가대표단이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도록 훈련장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스펙보다는 다양한 경험

오라관광의 인재상은 교감각동, 미래지향, 올바른 품성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호텔이나 골프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인성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시절 봉사활동은 중요한 가산 요인 중의 하나이다.

홍성오 기획인사팀장은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며 “이러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진정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호텔이라는 곳이 다양한 직무가 함께하고 유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홍 팀장은 ‘다른 직무에 대한 이해가 이뤄져야 호텔의 전반적인 운영을 이해할 수 있다’며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직무 외에도 다른 직무를 시킬 수도 있는데 특정 업무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른 직무를 해보겠다는 각오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턱대고 스펙에 매달리기보다는 넓게 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직무에 맞춰 철저한 준비

오라관광은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은 특정한 시기가 있기보다는 취업채용사이트나 오라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직무별로 나눠져 진행되는 채용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이뤄진다. 지원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다. 다만 호텔이나 골프장 같은 관광 업무는 외국인들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수준의 어학능력이 갖춰지면 좋다. 또 마케팅과 같은 영업 관련 직무에 있어서는 어학실력이 주요한 가산의 영역이 된다. 그러나 높은 어학점수를 받기보다는 실질적인 대화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채용은 다양한 직무별로 이뤄진다. 때문에 자신이 도전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와 그 준비가 철저할 필요가 있다. 각 직무별로 요구되는 자격증이나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하고 취업에 도전하자.

강보배 기자

문화단신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1일 강연

(사)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이 문화광장에 강연자로 나선다.

서 이사장은 1일 오후 2시 아라뮤즈홀에서 ‘제주올레가 그리는 제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번 강연은 그녀가 왜 제주올레를 만들기 시작했고 제주올레가 제주도와 우리나라의 여행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생생한 에피소드와 함께 들을 수 있다.

서 이사장은 시사저널 편집장과 오마이뉴스 편집국 국장을 거쳐 시사HN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연극 ‘Are you Craze’도 오는 8일 문화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연극은 정신과 의사들이



1일 문화광장 강단에 서는 (사)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그린 것이다.

초등영어캠프 오는 12일까지 모집

외국어교육원(원장 이기석)은 겨울방학 초등영어캠프에 참가할 초·중·고등학생 90명을 오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캠프는 내년 1월 10일부터 11박 12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 3~6학년이다. 접수는 영어캠프 홈페이지(<http://camp.jeju.ac.kr>)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95만원이며 입금자

순으로 접수된다.

이번 캠프에서는 놀이를 통한 체험식 수업으로 재미있고 친근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램은 유능한 원어민과 함께 수준별로 진행된다. 정규수업 외에도 퀴즈, 요리, 체육, 영화, 역할극 등을 통해 영어를 배운다.

문의=064-754-2291-2

극예술연구회, 28일부터 문예회관 소극장

극예술연구회 제27회 정기공연 연극 ‘라이어2’가 오는 28일부터 2일간 오후 4시부터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 연극은 한 남자의 두 집 살림 중 겪는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무대 위에서 표현한 연극이다. 20년간

두 집 살림을 하던 택시운전사 존 스미스는 두 집에서 각각 낳은 딸과 아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게 되면서 20년 동안 지켜온 이중생활이 타노날 위기에 빠진다. 티켓은 전석 3000원이다.

문의=010-4162-1589

수의학과 그룹사운드 공연 4일 문예회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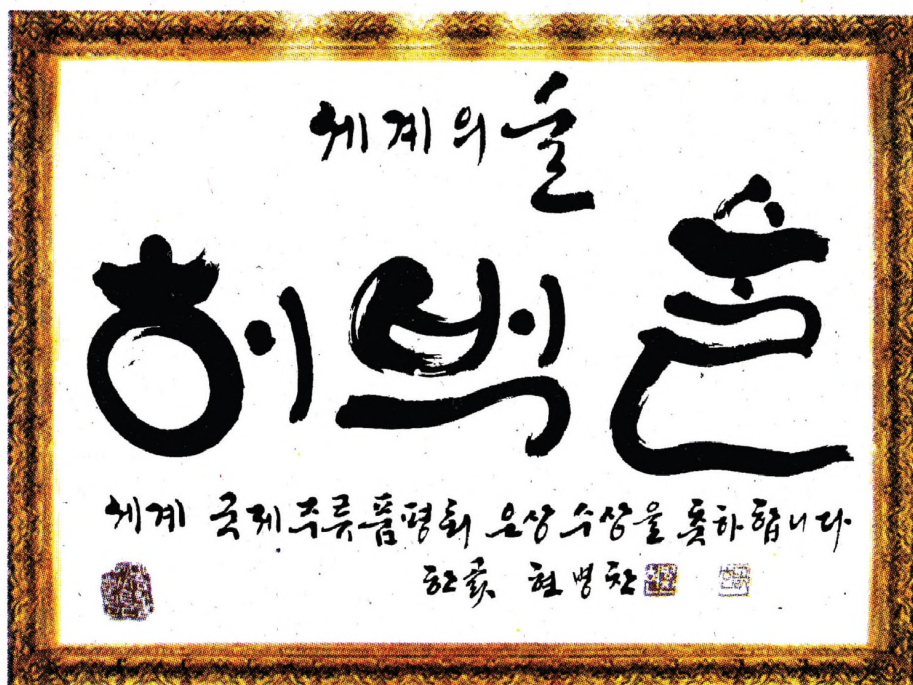
수의학과 그룹사운드 The VET가 오는 4일 오후 7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정기공연을 실시한다. The VET는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로 구성된 밴드다. 티켓은 전석 2000원이다.

문의=010-2321-4080

中秋佳節

2010년 국제주류평가(IWSC) 실버베스트인 클래스 수상



IWSC란 세계 3대 주류품평회 중 하나로 1969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영국씨리(잉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엄격한 블라인드 테스트와 성분분석을 통해 년1회 와인을 제외한 주종별 우수주류와 각국의 우수와인을 선정하고 있다.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안전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 금지)

올해 추석에는

세계자연유산처럼 세계(IWSC)가 인정한 명품 **한라산 소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물이좋아 순한소주



(주)하루하루

www.hallasan.co.kr

● 선물세트 구입문의 : 제주지역 전 할인매장 · 농협 · 수협매장

● 문의처 : 한라산 영업부 T.796-6674